

무더운 여름 냉·보양식 뜬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광주지역 유통업계에도 보양식과 차가운 음식으로 더위를 피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0일 광주 이마트에 따르면 이른 폭염이 진행된 기간인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장어, 전복, 삼계탕 같은 보양식과 시원한 음식인 냉면, 생선회, 냉동과일 등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년비 매출과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대표 보양식으로 꼽히는 장어는 113.8%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복 86.8%, 삼계탕 30.1%를 기록했다.

삼계탕은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 이마트 장어 113.8% 냉면 33.7% 신장 연일 이어지는 더위 대체음식 찾는 소비자 늘어

삼계탕은 백숙외에도 전복·문어·낙지 등 수산물을 함께 넣어 먹는 해신탕으로 보양식을 즐기는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이 꾸준히 올랐다.

이에 반면 폭염으로 시원한 음식을 찾는 소비자층도 두드러진다.

여름철 대표 음식은 냉면은 전년대비 33.7% 신장했다. 이중 물냉면은 40.2%, 비빔냉면은 27.2% 신장했다.

생선회는 15.3%로 신장했으며 광어회

와 모듬회(광어,우럭,연어)가 각각 27.4%, 17.1% 신장하였다. 이마트는 저녁식사대용과 안주거리로 2-3인용 광어회와 2-3인용 모듬회를 1만 원 대에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 여름 품목인 냉동과일은 8.1% 신장했다. 최근에는 아이스바, 슬러시 형태로도 가공돼 다이어트 간식, 아이스크림 대용 등으로 섭취 방법이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냉동과일은 최근 기술 발달로 제철에 수확된 과일을 최상의 선도에서 급속 냉동했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적고 맛과 향이 살아있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더구나 생과일에 비해 가격이 30-50% 가량 저렴해 경제적으로 꼽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담당은 "여름철 더위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여름철 보양식과 시원한 음식들로 더위를 피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보양식과 냉면 등 관련된 상품들을 예년에 비해 빨리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20일 문화교실 4기 개강

광주은행은 20일 본점 8층에서 결혼이주여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4기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1기를 시작으로 올해 4년째 맞이한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번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4기 수업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광주남구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선정한 20여명의 4기 수강생들은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 수업, 생활요가, 한국 전통 체험, 캘리그래피 등 문화수업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MBTI(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광주은행은 20일 본점 8층에서 결혼이주여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4기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타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다.

또 광주은행 직원의 강의로 금융사기

예방법 및 다양한 금융교육도 받는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서적인 후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서미애 기자

대우전자, UHD TV시장 집중공략

65인치 신제품 출시...178도 광시야각 등 적용

대우전자가 65인치 UHD TV 신제품을 출시하며 UHD TV 시장 확대에 나선다.

20일 대우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5인치 UHD TV 출시한 이후 지난해 말 49인치, 55인치 UHD TV 신제품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했고, 최근 대형 TV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65인치 신제품을 출시, UHD

TV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대우전자가 새롭게 출시하는 65인치 UHD TV는 기존 풀HD TV보다 4배 높은 해상도는 물론, LED Back Light를 적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역동적인 고화질의 화면을 제공한다.

178도 광시야각으로 보다 넓은 각도에서 깨끗한 색감과 화질, 풍부한 명암비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며, HDCP 2.2와 HDMI 2.0을 지원해 무손실 원본을 선명하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영상을 TV로 감상할 수 있는 MHL (Mobile High-Definition Link) 기능을 지원하고, UHD 이하의 영상도 디테일하고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UHD 업스케일

링도 제공한다. 화질뿐 아니라 사운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DDX+a 엔진 시스템을 채용,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아도 사실적인 음향으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대우전자 기술을 적용, 철저한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으로 ▲MHL (Mobile High-Definition Link) 기능 ▲USB 포트 ▲자동 업스케일링 (UPSCALING)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적용, 가성비 좋은 UHD TV를 찾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1억1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건설협회는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 18가구를 추천받아 무료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25년간 개·보수 귀감” 골드클래스 등 주택건설협회원사 적극 동참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가 25년째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이어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귀감을 주고 있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생활여건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는 지난 1994년부터 25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개·보수 해 주고 있다. 올해까지 총 221가구가 개·보수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 지방보훈청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복수추천을 받은 결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18가구를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재 지역주택건설사 17개 업체가 지난달부터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이번 달 완공을 목표로 개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다.

봉사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체는 ▲고운주택(주) (대표 정기섭) ▲골드클래스(주) (대표 박철홍) ▲(주) 대광건설 (대표 조태석) ▲(주) 대광이앤씨 (대표 조영준) ▲대성건설(주) (대표 임홍근) ▲(주) 리젠시빌 주택(주) (대표 이영웅) ▲(주) 리젠시빌건설(이건우) ▲(주) 리제 (대표 조영환) ▲(주) 모아종합건설 (대표 박치영) ▲(주) 삼라 (대표 박도순) ▲(주) 영무건설 (대표 박재홍) ▲우미건설(주) (대표 이석준) ▲은세계건설(주) (대표 박현수) ▲중흥건설(주) (대표 백승권) ▲해림건설(주) (대표 한동주) ▲(주) 호반건설 (대표 송종민) ▲(주) 호반건설주택 (대표 박철호) 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박재홍 회장은 "더 많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제 지역주택건설사 17개 업체가 지난달부터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이번 달 완공을 목표로 개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 지방보훈청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복수추천을 받은 결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18가구를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재 지역주택건설사 17개 업체가 지난달부터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이번 달 완공을 목표로 개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다.

빛 못 값는 가구, 1년 새 3만4,000가구 증가

소득이나 보유 자산으로 빛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가 1년 만에 3만4,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가 상승하면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2~3분위가 유달리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로 부채를 진 전체가 구 대비 3.1%였다. 2016년 3월 말(31만

2,000가구)보다 3만4,000가구 늘었다. 고위험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가 100%를 넘는 가구를 뜻한다. 소득이나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하기 버겁다는 의미다.

총 금융부채의 5.9%(57조4,000억원)가 고위험가구가 진 빚이었다. 고위험가구의 빚도 1년 전(56조4,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로 부채를 진 전체가 구 대비 3.1%였다. 2016년 3월 말(31만